

죽도록 일하고 싶지 않다!

노동시간 연장하는 반도체 특별법 반대한다

다시 떠오르는 윤석열표 주 120시간 노동의 악몽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2주 바짝 하고 노는 거지.
-2022년 윤석열-

2022년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윤석열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망령은 여전히 세상을 배회하며
호시탐탐 노동자들을 쥐어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은 괜찮다?

돈도 많이 버는 연구·개발직은 노동시간 규제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개발하면 사람이 아닙니까?
일하면 힘들고 힘들면 쉬어야 합니다.
누구도 언제 얼마나 일해야 할지 모르는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

사용자들은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동시에 급박한 필요로 인해 기존의 노동시간 규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니 퇴근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의 지시를
개별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만 위하는 세상. 다음 희생자는 여러분일 수도

반도체특별법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노동권을 제약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노동권을 제약하는 길이 열린다면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온갖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면 노동법은 누더기가 됩니다.



재벌체제 바꾸고 한국사회 바꾸자

재벌에게 특혜주는 반도체특별법 규탄한다!

반도체특별법=삼성특혜법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에 압도적인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인프라와 보조금의 특혜는 몰아주고, 세금과 규제의 책임은 면해줍니다.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정치권 눈에는 범죄자 이재용만 보이나?

여야 할 것 없이 재벌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노동자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에는 노동자와 시민은 안 보이고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만 보입니까?

잘못은 이재용이 책임은 노동자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력이 삼성전자를 떠나고 있습니다.
잘못은 경영진이, 책임은 노동자에게 돌리는 기업에 비전은 없습니다.
경영진의 무능, 이재용의 무책임이 위기의 원인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노동자 탓,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정부 탓.
남탓만 하는 삼성전자에 미래는 없습니다.

재벌을 바꿔야 한국사회가 바뀐다

특혜로 연명하는 재벌에 더 이상 한국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억지 논리의 결과는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죽도록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